

사설

교육불사의 새 전기

정부의 교육개혁과정에 의한 '대학설립·운영규정안'이 실시됨에 따라 대학설립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것은 종래의 대학교육의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여 고학력 위주의 '대학'을 일반화하면서 특성화·전문화교육으로 다양하게 급변하는 산업사회현상에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한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불교계도 이에 따른 발빠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다중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단순히 대학설립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승가대학이나 불교교양대학이라고 하는 언필칭 '불교대학'이 등장이라도 정규 4년제대학으로 승격할 것처럼 들리고 있으나, 이에 대처하는 교단이나 대학운영자의 의식개혁과 교육경연에 대한 사려깊은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집안의 교수가 크게 부족한 현실이다. 전통강원의 감소도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학 기준에 맞는 교수요원을 확보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외의 대학에서 현 대학 석·박사의 학문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재원들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셋째로 불교전문교육을 전수하는 것이 좋다. 불교는 이론으로 성취할 수 없다. 이론적인 것은 이론으로 끝날 뿐이다. 종교적 실천이 없는 교육은 이단과 시비만 조성된다. 따라서 전통의례(법배), 불화·불상조성, 전통건축 등 불교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화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불교는 한국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사찰의 전통과 수행적 특징이 있다. 이 분야는 사회적으로도 독창성을 인정받게 되어있다. 이러한 것을 살리고 계승하는 교육이 시급히 요청된다. 불자를 편만이나 일반 사회인들이 관심 갖는 전문분야로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

넷째로 내실있는 교육, 철저한 수행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승려교육도 과거에 비하면 계층교육에서 해이해진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철저한 청규를 준수하는 수행교육이 아니면 사회대중이 외면하게 될 것이다. 스님이 의식행과 대중설법을 하지 못하고, 교양대학을 졸업한 포교사가 포교설법을 못한다면 교육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대학설립 개방화에 즈음해 불교계에 비하면 기독교는 10여배가 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양보하는 자세로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는 정예교육의 장으로 차별성을 갖고 추진되도록 교단적 관심이 모아져야 하겠다.



◇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핵가족화 추세와 젊은 층의 늘어선 이탈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소외받는 노인이 늘고 있어 노인포교가 절실히 요구된다.

60세 이상 혼자사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96 인구주택 센서스에 따르면 배우자나 가족없이 혼자살고 있는 노인기구가 작년 10월말 현재 49만2천가구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포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노인포교, 얼마나 펼쳐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열린마당 노인포교

사찰을 가족수행·효실천 도량으로 만들어야

설웅스님 <속초종합사회복지관장>

1만불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는 문화행태가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다. 그중 선진국이 되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노인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선진 각국에서 노인문제가 공해문제의 나란히 최대의 화제가 되고 있고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가 다각도로 연구되어 노인문제가 중대한 쟁점이 되고 있다.

노인복지대책의 방식은 재가노인

복지대책과 시설 복지대책이 있다.

재가노인 복지대책은 첫째, 보건의료 대책으로 노인 의료비의 무료화이다. 노인 무료병원은 연꽃마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자리보전으로 가정봉사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 등이 있다.

시설복지 대책으로는 무료양로원과 유료양로원, 소규모 보호시설(Help Home) 등이 있다.

부처님 말씀에는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과 같다'

는 효도사상을 강조하고 있고 선진국에는 노년층이 대다수이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몸종고 몸가 좋은 명산대찰이 이제 개방을 통해 노인복지를 담당해야겠다.

불교계가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포교에 임한다면 사찰을 명실상부한 은가족의 수행도량으로 삼아 가족들에게는 효도사상을 심어주며, 나라에는 노인복지를 담당함으로써 선진국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생각한다.

교계 노인복지시설 확충 경로사회 선도하자

안순진 <불광정각여성대학 학장>

노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노인에게 일터를, 갈 곳 없는 노인에게 보금자리, 외로운 노인에게 다정한 이웃이 되어줄 불교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이 태부족한 것 같다. 실현 있다할지라도 단발적으로 행해지는 행사에 그쳐 노후의 적적함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불교의 자비는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라

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자들은 생활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기보다 부처님말씀의 논리적인 귀결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불자노인들은 어떤 노인들보다 무료하고 외롭다. 젊은 불자들의 따뜻한 손길과 복지관계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공원 그늘에 맥없이 앉아 환승에 저물어 가는 석양만 바라보고 있기에 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여간 아쉬

운 일이 아니다.

지역사찰이나 불교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곧 포교의 밑거름이리라 생각하고 우리 노인들을 위해 시간과 경제적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부처님전에 귀의해 남은 여생동안 부처님 율타리 밑에서 기도하며, 미력한 힘이나마 이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쓸모있는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자노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일 것이다.

보각스님 <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령화사회라함은 전체 인구에 대비한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 즉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중인 사회를 뜻한다.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 이상인 사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5.7%(2백54만명)였다. 2년전에는 6.8%에 이를 것으로 보여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고령화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 영양공급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노인은 존경받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고 있다. 물론 그 은혜에서 부모의 은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만큼 노인공경의 미덕도 같은 증량으로 강조되어 왔던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의 노인, 넓은 의미에 있어 사회의 부모들을 위해 불교가 무엇을 해야할지 신중히 생각해야 할 때이다. 물론 교계내에 몇몇의 노인복

“부처님 품에서 여생을”

노인문제 불교의 효사상으로 극복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급격한 진행은 노인을 공경의 대상에서 도리어 국가나 가족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노인문제를 가족이나 사회문제로 대처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노인복지 국가예산은 6백9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12%에 그쳤다.

여기에서 불교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당위론이 부각된다. 불교는 자비를 제일의 덕목으로 삼고 있으며 은혜를 알고 갚는 것을 자비의 근본으로 꼽

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는 시설의 수가 아니라 노인포교에 대한 중단과 각 사암 그리고 신도단체들이 갖는 인식의 정도이다. 체험으로 얻은 삶의 지혜를 가진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일생을 부처님의 품안에서 회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포교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불교계의 실버산업 참여는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와는 달리 날로 다양해져 가는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같은 시설의 확충과 함께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인력의 양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대만평

합심하면 좋을텐데...

목어

“내가 잘못을 저질렀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얼굴을 그린 그림만 보아도 그 문안에 들어가지 않겠소.”

그후 사람들은 처용의 모습을 그린 부적을 문에 붙여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움을 맞았다.

현대판 ‘처용부적’

널리 알려진 처용설화를 다시 상기하는 뜻은 성도덕 부재로 위기를 맞은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현대판 ‘처용부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싶어서다.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이 꼬리 꼬리 무는 가운데 가정주부의 윤락 행적이 불거져 나왔다. ‘심심하고 무료해서’ ‘자녀 과외비를 벌기 위해서’ 어엿한 부인들이 매춘을 한 것은 어디서 본 범죄현상일까. 가정은 남녀가 ‘서약’으로 시작한 약속의 땅이다. 그 율타리를 벗어나 ‘성’을 쾌락의 도구 또는 돈벌이로 삼다니... 이는 마치 지진에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듯 가정이 흔들리고 따라서 사회의 근본틀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 날로 희박해지는 윤리·도덕, 전도된 가치관. 우리

새벽별 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일이 어렵다고 해서

일이 쉽고 어려움에 따라 신념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당장 어렵다해서 고개를 저으며 돌아보지 않으면 뒷날에 지금보다 더 어렵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양겠는가. <선법보운>

한국불교포교사협회
회장 해월
Tel. (02) 813-8842

두 타산 삼화사 약사전 신축 상량식

귀의 삼보 하옵고

두타산 삼화사는 신라시대 자장율사의 창건 도량으로 (AD642년) 산(두타산) 바다(동해망상) 동굴(천곡천연) 계곡(무릉계곡) 폭포(용추폭포)등과 함께 자리한 천삼백년의 호국기원 도량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약사불은 중생들의 마음의 번뇌와 육신의 병고를 치유하는 십이지대원을 수지하고 중생들을 제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근대산업사회(쌍용양회)에 밀려 이곳 중대사 자리에 이주 후(1977년) 불상이 훼손되고 사육이 폐허 지경에 이르러 소송이 십개년 도량정화불사 계획으로 천일기도와 더불어 금번 약사철불이(지방 문화재 제112호) 복원 봉안될 약사전 신축 상량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코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선근인연을 맺으시기를 기원 합니다.

불기 2540년 7월 25일

— 다 음 —

- 일 시 : 2540(96)년 8 월 6 일 (음 6월 22일)
- 장 소 : 두타산 삼화사
- 증 명 : 박 비룡 · 김 인허 큰스님
- 범 어 : 김 현해 큰스님
- 문의처 : ☎0394)34-7661~2, 34-7546
(우)240-350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번지

두 타 산 삼 화 사
주 지 (자 광) 원 행 합 장